

이덕일의 '역사의 창'



1980년 5월 광주

올해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야. 나는 사석에서는 운동보다는 항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공식 명칭은 운동이다. 그런데 이 운동은 한 해 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격살(擊殺)한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다.

10·26사건 당시 나는 고교생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세상이 바뀐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치에는 무관해 보였던 기술 선생님이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는 생경한 풍경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비로소 우리들은 박정희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일부 '박정희교 신자들'이 반박했지만 이미 소수로 밀려 있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반미 관계데모를 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979년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했고,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4일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정권이 언론으로 하여금 김대중이란 이름 석 자도 쓰지 못하게 할 때였다. 미국의 카터 정부가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자 박정희

정권은 고교생들까지 관계 반미데모로 내몰았다. 교실 밖으로 우르르 나가자 군계 단친 교문 뒤로 경찰들이 와 있었으나 그들이나 우리 사이에 긴장감은 없었다. 관계데모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우리 고교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냈던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다.

10·26 사건 이후 언론에서 '재야인사'라고 모호하게 표현하던 그 인사의 실명은 '김대중'이었다. 언론은 이를 밝히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김종필 전 총리까지 가세해 '3김'이란 이니셜이 언론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정치판을 싹쓸이했다.

이후 광주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폭동'이라고 매도했지만 우리들은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유비통신'을 더 신봉했다. 광주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군이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발생한 80년대의 수많은 사건들은 이 사실을 때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국군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은 정권은 물론 국가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하는 사고를 가져왔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을 적으로 삼는 폭압 정치를 자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청교육대'였다. 각 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을 보내라고 할당했고, 교사들은 미운털 박힌 제자들을 삼청교육대라는 '지옥'으로 보냈다. 국민에게 총을 쏘 국군과 제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교사들, 이렇게 군과 교육은 무너졌다.

나는 지금도 내가 다닌 고교의 학생과 장 선생님이 제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지 않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엄했고, 사랑의 매도 자주 들었지만 그때는 절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삼청교육대 파견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우리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했다.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전두환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전두환은 5·

16 군사 쿠데타 때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조직했고, 이를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의 총에 속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었다. 이 하나회가 '5·17사태'의 몸통이었다. 훗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다더라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다.

전두환 일당의 '싹쓸이' 이후 40년의 역사는 1980년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국민과 이를 '폭동'으로 보는 세력이 맞서 싸운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역사는 올해의 4·15 총선으로 비로소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광주를 '폭동'으로 보는 세력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올해 유승민·주호영 등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가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은 것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하고 싶다. 80년 광주 이후 40년 만에 비로소 우리 역사가 정상으로 한 발 내디딘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社說

'청년들 떠나는 광주·전남' 대책 마련을

최근 20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평균 1만 4500명의 20대 청년들이 수도권 등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유랑'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00년 이후 20년간(2000-2019) 인구 이동 추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 수도권 순유출은 10대와 20대, 50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전체 순유출 규모는 2000년 1만 300여 명에서 2010년 2700여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300여 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남 지역 역시 2000년 2만 800명에 달했던 수도권 순유출자가 2015년 2700여 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5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연령대별 순유출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청년들의 연평균 순유출은 광주 2943명, 전남 1만 1560명 등 총 1만

4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옮겨 간 곳은 수도권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에서는 4800명이, 전남에선 5600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지난해 시도 간 이동 사유로 세 명 중 한 명이 '직업'을 꼽은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인구 감소는 광주·전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 2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활력을 잃고 경쟁력도 떨어져 미래를 기억할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에서 청년들을 붙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다른 기업에 확산시키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쓰고 탑승은 기본 중 기본이다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초 방역에 소홀해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점검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광천종합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218명' 버스에 7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했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다음날인 27일 화정동에서 '송암74번' 버스에 승차한 50대 승객도 마찬가지였다. '노마스크' 승객이 탑승해도 적극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 운전자를 볼 수 없었으며,

승객들은 '깜빡 잊었다'거나 '다음부터 쓰겠다'는 말을 한 뒤 버스나 택시에 올랐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2차 등교학이 시작된 어제만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무더기로 확인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유행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는 데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미착용 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한 데다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언제든 다시 대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며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시민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소홀해지지 쉬운 개인 위생수칙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슬기로운 여름 생활



김민성 수원천연한방병원 병원장

'더위'란 여름철의 주된 기운으로, 우리의 신체는 여름이 되면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 몸속의 진액이 마르고 면역이 약해져 바이리나나 세균이 공격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러한 더운 기운을 피하기 위해 찬 음식을 과다하게 먹지만,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하면 감기와 비슷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발달이 미숙해 체온 조절 기능이 불안정하므로 지나친 더위나 냉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감기를 비롯해 장염 등에도 걸리기 쉽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에어컨·선풍기 등의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겹옷을 항상 준비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기운을 순환시켜 열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다.

냉방이 잘된 환경에 장시간 있거나 차가운 음식을 과하게 먹을 경우 여름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주요 증상은 가벼운 감기와 같은 두통, 코 막힘, 목살, 권태감이나 땀이 나지 않고, 심하면 복통,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한 시간에 한번 이상 끄고 내부 환기를 시키며, 대형 매트나 은행 등 냉방이 잘 된 곳에 갈 때는 얇은 긴 소매 옷을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내리기 5분 전엔 에어컨을 끄고 실내 공기를 담으면 밖과 안의 급격한 온도차에 대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따뜻한 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냉방 환경을 개선하면 냉방병의 증상은 대부분 호전된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라면 각각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커피, 코막힘, 재채기, 소화불량,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진료 후 이러한 증상 치료에 효능이 있는 향유산 등의 한약 치료와 병행하면서 냉방 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한다.

둘째, 더위를 먹어 사지에 힘이 없고 몸에 열이 나 답답하며 갈증이 나고 식욕이 부진한 경우 적절한 식사로 원기를 보충하고 생맥산 등 여름용 한방차를 마신다.

한여름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도 병이 생긴다. 한방에서는 이를 '주하병'이라고 하는데,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말한다. 증상으로는 땀이 많이 나고 원기가 빠져나가 온몸에 힘이 빠져 걸음걸이가 무거워지거나 식욕이 떨어져 밥 먹기를

거부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로 원기를 보충하고 수박, 포도, 토마토 등의 과일을 먹어 모자란 전해질(몸속 수분)을 보충하면 좋다. 햇빛이 강해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실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원기를 북돋우는 데에는 생맥산이 좋고, 권태·피로·식욕부진·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인삼이 도움이 된다. 맥문동은 몸에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며 열대야에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또 오미자는 심장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며 면역력과 폐기능을 강하게 하고, 진해·거담 작용이 있어서 기침이나 갈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여름철에 피로와 더위 극복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로 차를 마시고, 증상이 심할 경우 한방병원을 찾으면 생활 속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고

광주 인공지능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재상 공학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016년을 전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의 전성시대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 창업 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한국 경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국책 사업을 광주광역시가 유치하면서 첨단 3차구를 중심으로 많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체들이 집적화되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기술 창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AI 국

가 전략'을 발표하고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지에 AI 대학원이 선정·지원되면서 경쟁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인프라로, AI 기술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 발굴과 지원 모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구축해야 할 때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 자동차, 로봇, 드론과 같은 차세대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홈, 스마트 팜 그리고 스마트 교통체계 서비스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술 창업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및 중국의 경우 혁신 기술 창출을 위한 대학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특성을 갖는 기술 창업에 적극 투자하는 자본(벤처 캐피탈)이 삼박자의 조화를 이루어 성공하고 있다.

이 삼박자를 잘 갖추어 인공지능 기반 기술 창업의 성공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이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연구단지)라고 생각한다. 기술 창업 성공 요인

이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 창출 관점에서 개발하고, 창업가와 창업팀의 기업가 정신, 고객 발굴과 시장성·수익성·기술성 타당성 검증,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 체계가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AI 스타트업 캠퍼스'와 'AI 스타트업 파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I 스타트업 캠퍼스는 인공지능 연구와 기업이 정신 전문 교육센터가 개방적으로 운영되어 18세부터 30세의 청년들에게 학기별로 실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탈 DFJ 창업자 겸 대표인 팀 드래퍼가 설립한 드레이퍼대학(Draper University of Heroes)이 대표적이다.

MIT 컴퓨터공학과 학생중 40% 이상이 창업을 하는데, 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는 어려울까? 인공지능 기반 기술 창업의 장이 활짝 열린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들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GIST 인공지능대학원을 중심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대

학들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와 같은 국책 연구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 창업교육을 개방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첨단 연구단지 내에 호남권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조성해 창업 구심점으로서 'AI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첨단연구단지에서 클러스터 정책을 강력하게 선도할 수 있도록 조그스 타트업 기업이 부족한 지식 재산권 전략과 디자인 팩토리를 근접 지원하고, 기술 인큐베이션, 적시 투자 및 펀딩 전략,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과 같은 성장을 위해 신뢰와 강력한 연대를 갖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연계해 창업을 지원하는 TIPS town(Technical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과 중기벤처기업부 사업인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유지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광주연합기술지주의 기능을 'AI 스타트업 파크' 중심으로 집적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광주 AI 융합단지에서 세계적인 AI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無等鼓

아스팔트 도로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접지력이 뛰어나 엔진의 힘을 바퀴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동차 속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었다. 아스팔트는 석유 원유 성분 가운데 휘발성 유분이 대부분 증발하고 남은 찌꺼기다. 이를 약 5%정도만 골때와 들로 섞으면 검은색 도로가 되는 것이다.

아스팔트의 쓸모가 자동차 도로 포장에 있다는 것을 인류가 안 것은 1870년의 일이다. 벨기에 화학자 에드먼드

총장로 아스팔트

(Edmund J. DeSmedt)가 뉴욕 시청 앞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았을 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조용한 데다 뛰어난 승차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스팔트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이 조각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며, 바빌로니아인들은 건축 접착제로 썼다는 흔적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00년대 후반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해진 아스팔트는 세계 곳곳의 도시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자동차로 뒤덮이면서 검은

색 도로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팔트 도로에도 단점은 있다. 주위 온도를 더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흡수한 열을 잘 방출하지 못해 잘 물러지는 등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는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절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시멘트와 함께 도시를 식막하게 하는 대표적인 소재이면서,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적합한 근본적인 한계가 그것이다.

동구청이 예향 광주의 상징이자 대표 가로인 총장로를 아스팔트로 채웠다. 10여 년 전 약 40억 원을 들여 아스콘이었던바닥재질을 화강암 보도블록으로 교체한 뒤, 다시 검은색 아스팔트로 되돌아간 것이다. 총장로에 수시로 자동차가 드나들면서 곳곳이 파손되고, 애초 바닥 다짐공사가 부실했으며, 땀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는 재질 형편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은색 아스팔트가 덮으면서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단순한 행정이 도시의 대표 거리를 망쳐버린 듯 하다. 총장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계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